

외박 꾸짖는 아버지

16살 딸이 흥기살해

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9일 외박했다고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(존속살해)로 김아무개(16·중2년 중퇴)양을 구속했다.

경찰에 따르면, 김양은 8일 아침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집 거실에서 아버지(47)가 “밤새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외박했느냐”고 꾸짖으며 때리는 데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흥기로 김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김양은 “새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 들어왔으나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자주 부리는 아버지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이런 일을 저질렀다”고 말했다.

경찰 조사 결과 김양은 지난해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뒀으며, 사건 당시 집에는 남동생(14·중3)이 있었고 어머니는 최근 아버지와 잦은 불화로 집을 나간 상태다. 수원/김기성 기자